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에 따른 외모인식도와 외모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

이정희 · 이혜순¹

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 · ¹한남대학교 간호학과

The comparison of the appearanc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self-esteem following the adolescent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Kyung Hee Lee · Hea Shoon Lee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seo University · ¹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Received : 18 August, 2013
Revised : 23 October, 2013
Accepted : 3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ea Shoon L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Life Science and Nano Technology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Tel : +82-42-629-8917

+ 82-10-5399-0380

Fax : + 82-42-629-8883

E-mail : lhs7878@hnu.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who demand the orthodontic treatment.

Methods : A total sample of 403 high school 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ver 20.0, for n (%), chi-square test, t-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Girl students (68.3%) tended to have a higher demand for orthodontic treatment than male students (31.7%). Higher appearance perception($t=6.967$, $p<0.001$), lower appearance satisfaction($t=-5.477$, $p<0.001$) and lower self-esteem($t=-7.333$, $p<0.001$) were higher in group of demand for orthodontic treatmen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 gender, self-perception of their teeth, appearance percept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nsider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in orthodontic treatment in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self esteem

색인 : 교정치료 수요, 외모만족도, 외모인식도, 자아존중감, 청소년

서론

교정치료는 안모(dentofacial)의 상태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진료 필요여부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이 있어 치료적 필요보다 수요자의 의지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¹⁾. 임 등²⁾의 연구에서 교정과 내원환자의 50% 이상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전문치과를 조사한 연구³⁾에서 13세 이상의 환자가 78.9%로 청소년의 교정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은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며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으며⁴⁾, 자아가 불안정하고 사고가 미숙하여 타인에 비취지는 자아를 더 신뢰하고 신체적 이미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⁵⁾.

안모결함은 열등감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기 부정교합을 가졌던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부정교합을 가진 청소년이 정상교합의 청소년보다 7배 이상 더 놀림을 받아 신체상과 자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청소년 중에는 경미한 부정교합임에도 심각한 심

미성 장애를 호소하며 교정 치료를 희망하는 반면 일부 청소년들은 심각한 부정교합임에도 교정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⁷⁾. 또한 부정교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아에 만족하지 못하여 교정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정치료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진료 필요도와 환자 혹은 보호자의 진료 요구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⁸⁾.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며,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 한다⁹⁾.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으로 인정받는다 인지하는 것으로¹⁰⁾,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는 성인기의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¹¹⁾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개인의 행동은 적응 및 부적응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¹²⁾,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행동 및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13,14)}. 교정치료 전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에서 대부분 교정치료 후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지 않았으며^{15,16)}, 안모의 인식도에서도 교정치료를 받은 그룹이 교정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와 같이 교정으로 인한 안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또는 교정 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치료적 만족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정치료 시 사회 심리적 요소도 교정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안모에 대한 인식도 또는 만족도에 관점을 두어 교정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18,21)},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에 따른 외모인식도,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정치료관련 문제 예방 및 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希

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H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²²⁾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05, 비교집단 수 2, 중간효과 크기인 0.15, 검정력($1-\beta$)은 0.80으로 선정하였을 때, 한 집단 간 필요한 표본수가 164명으로 총 328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403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H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기관장에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구두동의를 받았다. 배부한 450부 중 432부(96%)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3부(89.5%)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3.1.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측정은 한²³⁾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5개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 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인식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모 인식도는 하위영역으로 외모 중요도 9문항, 외모 관심도 9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8문항을 외모인식도 총점으로 나타내었다. 외모 만족도는 10문항으로 나타내었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한²³⁾의 연구에서 외모 인식도 총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0.85, 외모 중요도 0.76, 외모 관심도 0.82, 그리고 외모만족도 0.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모인식도 총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0.87, 외모 중요도 0.79, 외모 관심도 0.84, 그리고 외모만족도 0.80로 나타났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²⁴⁾가 개발하고 전²⁵⁾이 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전²⁵⁾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8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4$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4.2.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 4.3.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4.4.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4.5.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Odds Ratio(OR)와 95%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각 통계의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p < 0.05$).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51.4%, 학년에서는 1학년이 37.7%,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이 7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치아를 좋아함에서는 좋아함(Yes)이 52.9%, 본인 미소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No)이 51.9%,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에서는 경험이 없음(No)이 81.1%,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No)이 53.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교정치료 희망군은 50.9% (205명), 비희망군은 49.1% (198명)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2>와 같으며,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으로 나타났다($p < 0.001$).

구체적으로 교정치료 희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본인 치아를 좋아함에서는 좋아하지 않음(No)이 좋아함 보다 높고, 본인 미소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No)이 만족함 보다 높고,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에서는 경험 없음(No)이 경험 있음보다 높고,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No)이 만족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403)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96	48.6
	Female	207	51.4
Grade	1 st	152	37.7
	2 nd	122	30.3
	3 rd	129	32.0
Economic level	High	27	6.7
	Middle	321	79.7
	Low	55	13.6
Do you like your teeth?	Yes	213	52.9
	No	190	47.1
Do you have a nice smile?	Yes	194	48.1
	No	209	51.9
Do kids make fun of your teeth?	Yes	76	18.9
	No	327	81.1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	188	46.7
	No	215	53.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Variable	Category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χ^2	p
		N (%)	N (%)		
Gender	Male	65 (31.7)	131 (66.2)	47.861	<0.001
	Female	140 (68.3)	67 (33.8)		
Grade	1 st	73 (35.6)	79 (39.9)	.834	.659
	2 nd	65 (31.7)	57 (28.8)		
	3 rd	67 (32.7)	62 (31.3)		
Economic level	High	12 (5.9)	15 (7.6)	1.131	.568
	Middle	162 (79.0)	159 (80.3)		
	Low	31 (15.1)	24 (12.1)		
Do you like your teeth?	Yes	64 (31.2)	149 (75.3)	78.370	<0.001
	No	141 (68.8)	49 (24.7)		
Do you have a nice smile?	Yes	56 (27.3)	138 (69.7)	72.460	<0.001
	No	149 (72.7)	60 (30.3)		
Do kids make fun of your teeth?	Yes	64 (31.2)	12 (6.1)	41.663	<0.001
	No	141 (68.8)	186 (93.9)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	49 (23.9)	139 (70.2)	86.752	<0.001
	No	156 (76.1)	59 (29.8)		

3.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차이

외모인식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높으며 ($t=6.967$, $p<0.001$), 하부요인에서 외모 중요도($t=5.946$, $p<0.001$), 외모 관심도($t=6.208$, $p<0.001$)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5.477$, $p<0.001$) (Table 3).

4.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 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333$, $p<0.001$) (Table 4).

5.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2LL(-2 log likelihood) 값은 362.255, Nagelkerke's R^2 은 0.514, 카이제곱(Chi-square)은 23.711 ($p=0.003$), 예측정확도는 81.6%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2.861배

Table 3. The assesment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etween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t	p	Acquired score range	Possible score range
	Mean±SD	Mean±SD				
Appearance perception	60.60±9.82	53.55±10.49	6.967	<0.001	24-87	18-90
Appearance important	28.27±5.96	24.88±5.45	5.946	<0.001		
Appearance interest	32.33±5.35	28.67±6.45	6.208	<0.001		
Appearance satisfaction	28.91±6.32	32.42±6.55	-5.477	<0.001	10-49	10-50

Table 4. The assesment of self-esteem between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t	p	Acquired score range	Possible score range
	Mean±SD	Mean±SD				
Self-esteem	25.88±5.57	29.82±5.21	-7.333	<.001	10-40	10-40

(95% confidence interval [CI]=1.705-4.801) 높고, 본인 치아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좋아하는 경우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2.417배(95% CI=1.287-4.539) 높고,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3.567배(95% CI=1.896-6.7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인식도가 증가하면 교정치료 희망이 1.121배(95% CI=1.086-1.216) 높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교정치료 희망이 0.867배(95% CI=0.764-0.8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교정치료에 대한 희망여부는 구강상태와 교정 진료 필요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치료를 원하는 열망 정도 등의 심리적 측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¹¹⁾. 교정치료 희망은 여학생(68.3%)이 남학생(3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63.8%)이 남학생(36.8%)보다 더 많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²⁶⁾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⁵⁾.

부정교합에 의한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수요자의 인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심미적·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 대상은 진료를 받는 수요자인 환자이기 때문이다¹¹⁾. 본 연구의 교정치료 희망여부는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대한 놀림을 당한 경험 없음, 치아 상태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결정요인을 확인한 연구결과에서 치아배열에 대한 만족도가 저작이나 발음의 불편 정도보다는 교정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27,28)}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 The effect factors for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N=403)

	<i>B</i>	S.E.	Wald	p	Odds ratio	95% CI*	
						Lower	Upper
Intercept	-4.028	.738	29.794	<0.001			
Gender [†]							
Male					1		
Female	1.051	.264	15.835	<0.001	2.861	1.705	4.801
Do you like your teeth? [‡]							
Yes					1		
No	.883	.322	7.532	.006	2.417	1.287	4.539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							
Yes					1		
No	1.272	.322	15.556	<0.001	3.567	1.896	6.710
Appearance perception	.137	.027	21.467	<0.001	1.121	1.086	1.216
Self-esteem	-.218	.130	48.098	<0.001	0.867	.764	.852

*CI=confidence interval

[†]Gender: male (1) versus female

[‡]Do you like your teeth? : yes(1) versus no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1) versus no

또한 Yeh 등²⁹⁾의 연구에서 본인의 교합상태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와 검사자의 교정필요도(IOTN) 지수와의 관계를 볼 때 치열교합요소(DHC)와 심미성 평가요소(AC)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자들이 인지하는 자가인지 교정 진료 필요도를 예측하는데 심미성 평가요소가 유일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치아교정 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 청소년이 더 놀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⁶⁾ 일반적인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강상태 보다는 자신의 치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의 인식이 교정희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교정치료를 희망하는 그룹의 외모인식도 점수가 높으며, 하부요인인 외모중요도와 외모관심도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외모관심도와 외모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외모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³⁰⁾와 유사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정교합의 심각성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¹⁹⁾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김 등²⁷⁾에 의하면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는 안모 때문인 경우가 66.8%라 하였지만, 청소년기의 교정치료에는 단순한 안모의 변화보다는 더 복잡한 심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Feu 등²⁰⁾은 청소년(12-15세)을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진행 중인 그룹, 교정치료를 기다리는 그룹, 정상 그룹을 나누어 신체상(body image)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교정을 기다리는 그룹은 계속해서 신체상이 낮아졌지만 교정 치료 중인 그룹의 경우 교정치료가 끝난 후 정상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상이 안정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와 유사하게 교정치료가 단순한 안모개선 이외에 외모인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모에 대한 심미적 자아상(self-perceived aesthetics)과 교정치료 필요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대상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⁹⁾,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교정치료 종료군 만이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³¹⁾, 교정치료 희망그룹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교정치료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에서

교정으로 인한 안모의 변화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15,16)}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정치료 이외의 다른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본인의 치아를 좋아함,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및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Riversa 등³²⁾은 부정교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외모인식에서도 정상교합을 가진 청소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Phillips과 Beal¹⁸⁾의 연구에서는 부정교합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력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자아인지도가 부정교합 심각성 정도보다 자아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기의 교정치료는 안모의 변화 외에도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대한 올바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가는 교정치료 수요자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기술적인 치료와 더불어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 간 그룹의 외모인식도,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전체의 학생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모집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청소년의 부정교합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정치료 문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H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부한 450부 중 432부(96%)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3부(89.5%)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1.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 희망군은 50.9% (205명), 비희망군은 49.1% (198명)로 나타났으며, 교정치료 희망군 중 여학생(68.3%)이 남학생(3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인식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정치료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교정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Kim KH, Self-perception and index of orthodontic treatment need in 12-14 year adolescents[Doctoral dissertation], Gwangju: Univ. of Chosun, 2005.
2. Im DH, Kim TW, Nahm DS, Current trends in orthodontic pati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Korean J Orthod 2003; 33(1): 63-72.
3. Jung MH, Current trends in orthodontic patients in private orthodontic clinics, Korean J Orthod 2009; 39(1): 36-42.
4. Seol HJ,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growing generation concerning appearance[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ungshin Women's, 2009.
5. Shin HJ, A qualitative study of beautiful in modern women appearance[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Kon-Kok, 2002.
6. Helm S, Kreiborg S, Solow B, Psychosocial implications of malocclusion: a 15-year follow-up study in 30-year-old Danes, Am J Orthod 1985; 87(2): 110-8.
7. Aguo S, Locker D, Streiner DL, Tompson B, Impact of self-esteem on the ora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hildren with malocclusion, Ame J Ortho Dento Orthoped 2008; 134(4): 484-9, <http://dx.doi.org/10.1016/j.ajodo.2006.11.021>.
8. Shaw WC, Factors influencing the desire for orthodontic treatment, Eur J Orthod 1981; 3(3): 151-62, <http://dx.doi.org/10.1093/ejo/3.3.151>.
9. Seo YK,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Women's, 2003.
10. Lim JH, A study on female students' satisfactory level of outlook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Myongji, 2011.
11. Kim YH, Elementary students' satisfaction of appearance and their efforts for better appearance[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2008.
12. Lim SK, Lee HS,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 Home Economic Edu Assoc 2007; 19(3): 169-83.
13. Hwang MH, Yeo TC, Self-esteem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J Child Edu 2006; 15(3): 165-85.
14. Kim JS, Won YS, Park SY,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 part of Jeonbuk area,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307-15.
15. Birkeland K, Bøe OE, Wisth PJ, Relationship between occlusion and satisfaction with dental appearance in orthodontically treated and untreated groups, A longitudinal study, Eur J Orthod 2000; 22(5): 509-18, <http://dx.doi.org/10.1093/ejo/22.5.509>.
16. Shaw WC, Richmond S, Kenealy PM, Kingdon A, Worthington H, A 20-year cohort study of health gain from orthodontic treatment: psychological outcome,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 132(2): 146-57, <http://dx.doi.org/10.1016/j.ajodo.2007.04.009>.
17. Dann CIV, Phillips C, Broder H, Tulloch JF, Self-concept, Class II malocclusion, and early treatment, Angle Orthod 1995; 65(6): 411-16.
18. Phillips C, Beal KN, Self-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facial appeara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eeking orthodontic treatment, Angle Orthod 2009; 79(1): 12-6, <http://dx.doi.org/10.2319/071307-328.1>.
19. Badran SA, The effect of malocclusion and self-perceived aesthetics on the self-esteem of a sample of Jordanian adolescents, Eur J Orthod 2010; 32(6): 638-44, <http://dx.doi.org/10.1093/ejo/cjq014>.
20. Feu D, Oliveira BH, Celeste RK, Miquel JA, Influence of orthodontic treatment on adolescents' self-perceptions of esthetic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12; 141(6): 743-50, <http://dx.doi.org/10.1016/j.ajodo.2011.12.025>.
21. Park YN, Lee MR, Maincause of influencing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and self-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3): 513-22.
22.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11.
23. Han SS,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ppear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Master's thesis]. Chuncheon: Univ. of Chuncheon, 2006.
2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
 25.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 11(1): 107-29.
 26. Kim JS. Analysis of elements which affect treatment time of straitening tooth of orthodontic patients in some areas. J Korean Acad Dent Hyg 2011; 13(3): 173-84.
 27. Kim SS. The effects of malocclusion and pereption on orthodontic treatment timing[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1999.
 28. Lee SY. A study on orthodontic treatment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people in general.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251-60.
 29. Yeh MST, Koochek AR, Vlaskalic V, Boyd R, Richmond S. The relationship of 2 professional occlusal indexes with patients' perception of aesthetics, function, speech, and orthodontic treatment need.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0; 118(4): 421-8. <http://dx.doi.org/10.1067/mod.2000.107008>.
 30. Lee YS. A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types, appearanc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mong the young people[Master's thesis]. Busan: Univ. of Silla, 2009.
 31. Jung MH.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 Orthod 2007; 37(1): 56-64.
 32. Riversa SM, Hatch JP, Rugh JD.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orthodontic and orthognathic surgical treatment. Semin Orthod 2000; 6(1): 259-69.